

11월의 사양관리

— 축산기술연구소 —

일반 사양관리

안 해 동안의 목장경영을 정리하는 시기로 차기 년도를 위한 경영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목장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도출시켜 발전적인 방향의 목장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한다.

조사료원을 수입건초에 의존하고 있는 낙농가는 수입 킬터량의 조정 등으로 조사료 파동이 현실로 닥쳐오고 있고 값도 상승하고 있으므로 확보된 조사료의 효율적 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자급 조사료 확보(벧짚 등)에 만전을 기해 주어야 한다. 또한 사료변경을 할 경우 15일 정도의 기간을 두어 서서히 변경하도록 하며 MUN 검사를 받도록하여 사료배합이 적정하지 번식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양질의 사일리지를 개봉 할 때는 관리에 주의를 요하며 관리가 나쁘면 2차 발효 및 변질이 일어나며 소화율과 건물섭취량이 감소와 산유량 감소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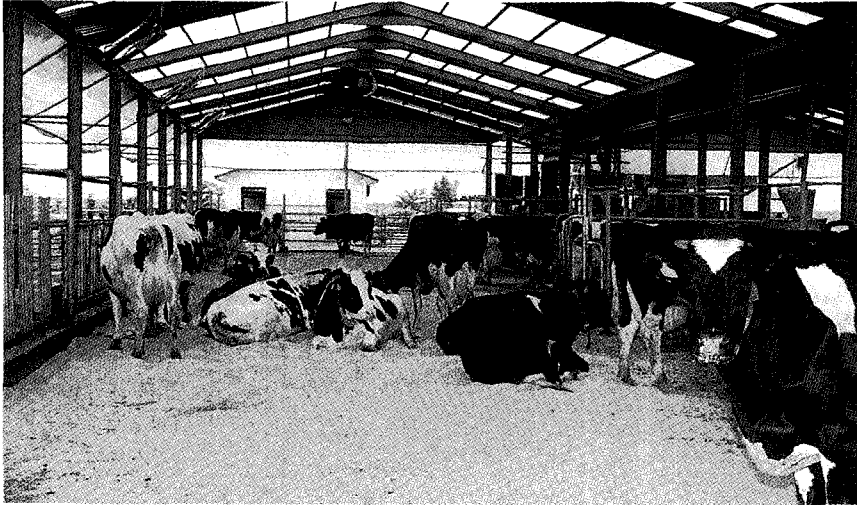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는 시기로 착유실 및 급수시설이 얼지 않도록 월동준비를 최종적으로 점검한다.

송아지관리

기 온이 떨어지므로 특히 초유 및 분유를 먹는 송아지는 보온 및 환기관리에 신경을 쓰고 바닥이 습하지 않도록 깔짚을 자주 바꾸어 주며, 바닥으로 올라오는 냉기 및 샷바람을 막아준다.

송아지 분만시는 서서히 자연분만을 유도하고 최대한 빨리 초유를 최대한 급여하고 남은 초유는 냉동실에 보관하여 초유를 먹일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보관한다.

송아지설사는 출생 후 10일 이내에 급성으로 다발하며 감염율과 치사율이 높다. 출생후 초기에는 대장균 감염에 의하여 설사가 발생하며 이후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설사가 발생한다. 치료제는 주로 항생제를 사용하며 설사가 시작되기 전에 투약하고 탈수 중에는 링거액, 전해질, 간기능 강화제, 지사제 등을 주사하거나 먹이며, 어미소의 혈액 수혈도 효과적인 치료방법 중의 하나다.



꺾 소의 관리가 방사기에서 사사기로 전환됨에 따라 우사내의 환기 및 보온에 유의하면서 셋바람의 유입을 방지하여 송아지 및 육성우의 호흡기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며, 운동과 일광욕을 충분히 시켜 지체 등 체형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야 만이 훗날 타고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생산수명도 길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운동량이 줄어들고 일조량이 감소하면 번식우의 발정 지속시간이 짧아지는 등 수태율의 저하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정예정일을 미리 예측하여 세심한 발정관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추위가 몰아 닦쳐 우사 바닥이나 운동장이 얼기 전에 발굽을 손질할 대상우를 선정하여 매끄러운 우사바닥이나 날카롭게 얼어붙은 운동장에서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우사나 운동장의 퇴비는 얼기전에 제분작업을 실시하여 건조한 깔짚위에서 겨울을 나게 하는 것이 지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동안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체형심사 등 젖소개량사업 참여와 수정, 치료기록 등 모든 기록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는지 점검하여 년말 목장경영 분석에 대비해야 되겠다.

방 목이 끝난 초지에는 예초기 등으로 초장이 10~15cm가 되도록 청소베기를 실시한다. 답리작 호맥을 파종한 논은 배수로를 점검하여 월동준비를 하고 초지 및 월동용 사료포의 진압을 실시하여 습해 및 동해를 예방한다. 연맥을 수확하여 사일리지, 헤일리지 등을 제조할 때는 적당한 수분으로 예건한 후 실시해야 양질의 조사료를 수확할 수 있다. 작업시기를 놓쳤을 경우는 모아로 예취하여 그대로 놔둔 다음 1월 중 겨울 가뭄 때 교반기로 교반하여 건초를 생산하는 방법도 있다. ☺

육종 번식분야

초지 및 사료포 관리